



● 왼쪽부터 박철준 씨, 임희근 씨, 윤청광 이사장, 표정훈 씨, 이구용 씨, 송영만 씨

우리 출판의 해외진출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국출판연구소는 지난 10월 28일 '우리 출판의 해외진출, 그비전과 과제' 라는 주제로 제 32회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우리 출판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표정훈 씨(출판평론가·번역가)가 출판저작권 수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구용 씨(임프리카코리아 에이전시 사장)가 출판저작권 수출의 실무 노하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송영만 씨(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교류 담당 상무이사), 박철준 씨(뜨인돌출판사 부사장), 임희근 씨(출판 기획·번역 네트워크 '사이애'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나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표정훈 씨는 출판저작권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전에 우리나라에 공신력을 갖춘 저작권 수출 관련 통계,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황과악 시스템의 부재가 현재 우리 출판문화의 어려움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표씨는 우리 출판의 해외진출의 최대 숙원인 영미 도서시장 진출방안을 찾으려면서 크게 관련 당국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출판계 차원의 노력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영국문화원과 프랑스 에디시옹의 출판지원을 예로 든 데 관심을 가졌다. 표씨는 개별적인 책의 번역출간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우리 출판의 관건이라면서 지식, 정보,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판계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구체적인 의견도 덧붙였다. 출판사 차원의 방안으로는 해외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책이 보편성을 담은 책인지 한국적 특수성을 담은 책인지를 냉철하게 고

민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세계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글로벌 기획’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구용 씨는 10년 동안 출판 에이전시에 근무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사항들을 토대로 출판저작권의 실무를 소개했다. 기획안 마련부터 저자 섭외 및 계약 과정, 홍보물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씨는 해외시장에 눈 밝은 에이전시답게 중국시장의 아동도서 관심열기, 일본 및 기타 국가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해외 출판계의 흐름을 짚어주었다. 그리고 우리 출판물 진출의 한 방법으로 서양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와 국내 작가가 함께 만든 아동도서를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인 송영만 씨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다녀온 후 느꼈던 점과 발표자들의 의견에 대한 생각들을 덧붙였다. 그는 북경 도서전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장에 맞는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지나치게 펜시 느낌이 강한 책을 수출하기보다는 유럽에서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국내 출판인들에게 관광개념의 출장이 아니라 해외 저작권 수출입을 위한 큰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출판인들이 현지 통역 아르바이트생 물색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빈슨 시리즈 수출을 예로 든 박철준 씨는 간단한 보도자료보다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영문판을 갖고 해외 시장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번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곧 해외출판 시장을 여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출판사 국제 담당자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임희근 씨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현지에 있는 유학생과 관련자들이었다면서 실무자로서 느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또 우리에게는 명저이지만 외국인에게도 명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가령 우리 성곽책을 낼 경우에는 각 나라 성곽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성곽도 함께 소개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세계 문화사의 느낌을 잘 조화시킨 책으로 ‘테마 한국문화사 편’ (돌베개)을 꼽았다. 그는 해외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자는 이구용 씨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국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작가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이구용 씨는 “출판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다. 에이전시 입장에서 상업적 마인드를 갖고 대안을 제시해 본 것”이라면서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외시장 정보를 발빠르게 분석하고 한국 출판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본 윤청광 이사장은 “저작권의 소재는 많고 시장은 열려 있으니 앞으로 태국, 방콕,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기점으로 완벽한 번역서를 갖고 진출하는 토대를 만들자”며 포럼을 정리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국내 출판인들에게 관광개념의 출장이 아니라 해외 저작권 수출입을 위한 큰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출판인들이 현지 통역 아르바이트생 물색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정책적 문제는 물론이고 출판인 모두가 한국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과 계약, 홍보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을 시사하는 자리였다. **한경**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제공 한국출판연구소